

JAE-EUN CHOI 최재은

March 2025 | 편집부

JAE-EUN CHOI

최재은





일본 교토의 숲속, 현대예술가 최재은은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연다. 서로 다른 높이에서 겹쳐지는 새들의 지저귐을 듣고, 땅 아래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
을 느낀다. 이 모든 소리와 색을 담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사람, 최재은에게 자연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탐구해야 할 존재다. 전위예술의 중심지였던 소게
츠 아트 센터(The Sogetsu Art Center)에서 수학한 그는 조형적 꽃꽂이 '이케바나(Ikebana)'를 통해 자연을 매개로 한 예술을 처음으로 접했다. 이후 조각과 설
치미술, 건축을 비롯해 사진과 영상,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자연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그의 작업에는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채
스러져가는 존재들, 인간이 만들어낸 경계와 단절,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깃들어 있다. 정제된 아름다움에는 언제나 깊은 성찰이 자리하며,
자연이 품은 시간성과 우리 시대의 현실이 함께 어우러진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한다. 더 가까
이 다가가고, 더 깊이 듣고, 더 오래 머무르는 것. 그렇게 자연과 호흡하는 예술을 통해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든다.

생태에 대한 관심은 소게츠 아트 센터에서부터 시작됐나요 식물이라는 살아 있는 소재를 다루다 보면 그것이 지닌 시간의 유한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
니다. 꽃이 피고 시드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소멸해 버린다는 사실을요. 당시 1970년대 일본의 예술 흐름의 중심은 모노파였는데, 저 역시 사물의 본질
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시간'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이어졌죠. **시간과 생명을 처음 보여준 작업이 '대지'였습니까.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의 실내 석조 정원 '천국(Heaven)'을 흙으로 덮고 씨앗을 뿌린 설치미술 작업은 당시 이케바나에서는 이례적인 시도였어요** 흙은 시간과 생명의 흔
적이 쌓여 형성된 존재로, 탄생과 소멸이 공존하는 순환과 재생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 작업은 흙이라는 소재를 선택하면서 이케바나에서 벗어나 실내공간
을 넘어 외부 작업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986년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World Underground Project)'에서 흙과 일본 전통 종이인 와시를
변형해 만든 종이로 시간이 개입하는 작업을 선보였습니까. 이 과정에서 자연과 시간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게 됐나요** 흙을 통해 자연과 시간이 같은 것임을 느
꼈어요. 모든 생명은 시간에 묶여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 자체가 시간과 자연의 이야기예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
죠. 흔히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보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개별적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 있을까
요? 아마 그들의 이름조차 모를 때가 많을 거예요. 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고, 기록하는 행위는 곧 그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죠. '우리가 처음 만
났을 때(When We First Met)' 작업도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어제 본 식물이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을지,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
연의 존재를 의식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인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가는 과정이죠. 작은 들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알게 되면 이를 계기로 사유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자연에 한 발짝 다가가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기본적
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들꽃처럼 자연에 무관심한 현실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자연을 섬세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환경
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창한 기부나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와 작은 감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너져가
는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평생을 생명과 순환이라는 화두에 매진해 온 예술가 최재은에게 'DMZ 프로젝트' 역시 배움을 수
없죠. '대지의 꿈(Dreaming of Earth)'부터 '자연국가(Nature Rules)'까지 현실적 가능성이 어려운 공간을 작업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DMZ는 고통스러운



2023년 일본 도쿄 근야 세운 에르메스 프로젝트에서 열린 개인전 <세로운 삶 La Vita Nuova> 전경. 오키나와에서 채취한 연호박을 전이함으로써 소환된 내담의 결구체를 작품 '백만 죽음(White Death)'.
2019년 일본 도쿄 현대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자연의 꿈(自然の夢) 대지의 꿈 The Nature Rules Dreaming of Earth Project> 전경.
1942년 이후 서양에서는 10% 이하의 멸종 위기종의 이름을 새긴 10% 이하의 조각 작품을 부르거나 To-Call by Nam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2010년 일본 도쿄 하라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아스카의 숲 Forest of Asuka>의 전경, 미국 아미시(Amish) 그룹이 쓰다 버린 목재를 가져다 전시장에 길게 쌓아 올렸다. 2023년 일본 도쿄 간자 메종 에르메스 르 포럼에서 열린 개인전 <새로운 삶 La Vita Nuova>, 1986년부터 시작된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World Underground Project)'는 특별한 제작한 종이를 다양한 나라의 흙속에 묻고 수년 뒤 꺼내는 작업으로 그 시리즈인 '땅으로부터의 화답(Reply From the Earth)' (Kynguju/Fukui, 1986~1991), 'Paper Poem' 시리즈(2024), 2019년 일본 도쿄 하라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자연국가(自然國) 大지의 꿈>의 전경, DMZ 철조망을 녹여 제작한 종이는 눈처럼 녹는다(Hatred Melts Like Snow).



"자연을 다루다 보면 사적이거나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최재은의 작업은 때로는 시가 되고, 때로는 철학이 된다.



역사의 상징이면서 70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이 되살아난 아
이러니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6000종 이상의 생태계가 생태계를 구축하
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DMZ는 단순히 '보존해야 할 자연'이 아니라 우리
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 베를린 장벽이 해체될 때 유럽 예
술가들이 벽을 주제로 통일을 향한 역할을 했듯이 국내는 물론 세계의 더 많
은 예술가가 DMZ에 주목하고, 이를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합
니다. 예술가들의 참여와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길 기대해요. **2015년에
시작해 오늘날까지 긴 시간에 걸쳐 진화하고 있는 'DMZ 프로젝트'의 첫 시
작점은 무엇이었나요** 오래전부터 '경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품어왔어
요. 자연에는 경계가 없는데, 인간은 왜 경계를 만들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 1999년, 72분짜리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영상 포럼 '길 위에서(On the
Way)'를 제작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시작해 베를린, 히로시마를 거쳐 판문
점에서 끝나는 여정이었죠. 당시 아홉 살이던 배우 문근영이 판문점에서 자
연과 인간의 경계를 대조하는 시를 낭독한 모습을 담았어요. 깨어진 콘크리
트 사이를 넘나드는 개미와 그 뒤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그 경계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연은 경계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인간만이 선을 긋고 총을 겨
누며 긴장을 이어나간다는 사실이 여러차례 느껴졌어요. 이후 2014년, 아트선
재센터 김선정 관장의 기획으로 리얼 DMZ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참원 월정
리에서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No Borders Exist in Nature)'를 선보이며 이
것이 내가 해야 할 프로젝트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예술가에게
연락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함께할 것을 요청했죠. **그렇게 탄생
한 것이 DMZ 공중정원 프로젝트 '대지의 꿈(Dreaming of Earth)'입니다.
반 시계로, 크리스티앙 불탕스키, 올리퍼 엘리야슨, 송효상 등 다양한 건축
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에 참
여한 작가들은 단순히 유명하거나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DMZ의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세계 평화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윤리적 고민
을 공유하는 작가들이 가까이 동참해 왔어요. 그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에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첫 참여 작가는 반 시계루였습니니다. 프로젝트를 위
해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DMZ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외부에서 가져온
콘크리트나 인공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작업은 DMZ 내 자연 소재로
만들어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었죠. 이 원칙 아래 프로
젝트는 점점 확장됐고, 생태적 보존을 고려한 건축물과 구조물이 생겨났어
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 미래를 대비한 종자와 지식 저장소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죠. 현재 새로운 작가들이 참여하며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
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협업이나 흥미**

로운 에피소드가 있다면 여러 작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줬어요. 특히
조민석 건축가는 철원 역곡천 근교를 염두에 두고 구상했던 종자 저장소와 지
식 저장소를 철원 제2터널을 활용해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영국
밀레니엄 종자은행(MSB)을 직접 방문해 연구하기도 했죠. 크게 감동받았어
요. 매우 감사한 마음이에요. **크리스티앙 불탕스키의 참여에도 인상 깊은 비
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도쿄와 나가사키 회고전 당시 불탕스키와
연락이 닿아 나가사키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했지만, 그는 '나의 사후에 실행
되는 프로젝트에는 관심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 후 그는 20쪽에 달하는 시안
을 보내왔고, 남북의 경계선을 따라 1km에 걸쳐 작은 종을 긴 막대에 매달아
설치하는 작업을 제안했죠. 이는 그의 영상 작업 '아니미타스(Animitas)'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스페인어로 '작은 영혼'을 의미해요. 이 작업이 의미 있었
던 건 그가 구상을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끝까
지 프로젝트를 생각했던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월 국제갤러리
에서 열리는 <자연국가 Nature Rules>전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나
요** 관람자들이 DMZ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철저한 연구와 계획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생태를 분석하고, 각 장소에 적합한 식물을 데모화해 정리했어요.
그래서 관람자가 특정 지역을 선택해 종자 폭탄(Seed Bomb)에 적합한 씨앗
을 선택하고 기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실행은 DMZ 환경이 완화되는 시
점에 이뤄지고, 지금은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기부를 넘어
자연과 새로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연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는 생명들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나
아가 이런 인식이 모이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전시에
서는 가을 숲을 산책하며 채집한 색과 자연에서 들은 소리를 시각적으로 기
록한 평면 작품과 텍스타일 작업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40여 년 동안 자
연과 가까이 지내며 많은 성찰의 순간이 있었을 테죠**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
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이 환경에 점점 무관심해진다든 점에서 많
은 생각을 했어요. 자연은 이해할수록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존재인데, 우리
는 여전히 빠른 속도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20세기 속도 중심적 사고와 물질적 가치 기준이 낳은
결과이기도 해요. 이제는 좀 더 초화로운 삶의 속도를 찾고, 가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실천이에요. 지구가 점점 파괴되고 있는 지금, 하루라도 더 천천히 살
아가고, 주변을 깊이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하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문제나 아
니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예요.